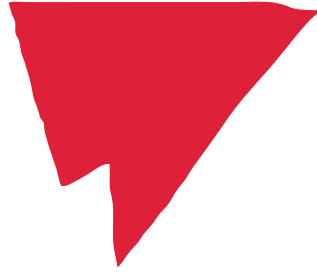


영지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국립극단 청소년극
영지
연출. 김미란
작. 허선헤

공연일시
2019. 5. 23(목) -
2019. 6. 15(토)

공연장소
소극장 판
주최/제작
국립극단

줄거리

‘가장 깨끗한 동네 1위’에 뽑힌 완전무결의 마을 병목안. 그곳에 어딘가 이상한 아이 ‘영지’가 전학 온다. “나는 영지야. 새의 머리에 인간의 몸통에 개구리의 다리를 가졌어. 날개도 있고 꼬리도 있지. 내일은 또 다르고 모레는 또 달라!” 영지는 남의 집을 훑쳐보고 새벽까지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기이한 아이. 밤마다 악마선생을 불러내기까지 한다! 마을의 마스크트 효정과 모범생 소희는 영지가 알려주는 신기한 놀이와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병목안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무언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영지. 악마선생들과 함께 주문을 외우며 무언가를 불러오기 시작한다. 불러오자, 불러오자! 영지는 통나무와 말과 작은 별을 불러내고 물고기까지 불러내는데...

Chosen as the cleanest town, Byeongmokan was a perfect town in all aspects until a girl called Yeongji becomes a new resident of the place. Yeongji is an odd girl who tells other children that she has the head of a bird, the body of human, and the legs of a frog. She also tells them she has wings and a tail not to mention her body changes every day. Yeongji peeps into other people's houses and walks around the town all night. She even summons Mr. Devil at night. Hyojeong and Sohui, the two girls from the town who never caused trouble in their lives become fascinated by Yeongji's stories and her games.

One day Yeongji finds out that the town people are planning something against her. With Mr. Devil, she uses a spell to summon a log, a horse, a little star, and a fish to be on her side...

김수빈 Kim Su-bin



영지 Young-ji

김수빈 Kim Su-bin

- 연극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 극단 창업교육 훈련 참여자 입장을 중심으로> <오진날> <쌀엿 잘 만드는 집>
- 음악극 <바람노래>
- 뮤지컬 <노크똑똑>

효정 Hyo-jeong

박소연 Park So-yeon

- 연극 <페스트>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청춘예찬>
- 음악극 <태봉국의 왕 궁예>
- 뮤지컬 <아빠가사라졌다> <1984>
- 영화 <EMO> <지구를 지켜라> <봉봉> <채비>



박소연 Park So-yeon

소희 So-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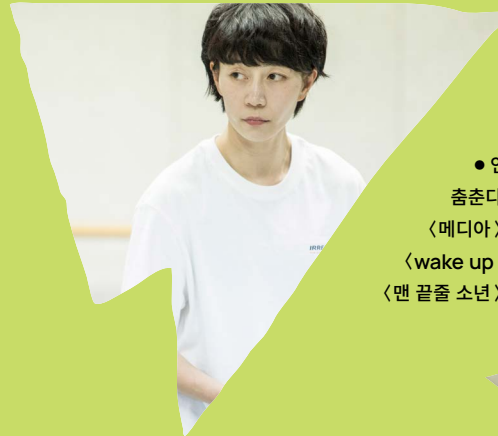
전선우 Jeon Seon-woo

- 연극 <1984> <풍경>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 - 데모버전> <젊은 후시딘> <오시비영침 기록극> <데스데모나-웬 손수건에 관한 연극> <정물> <원치않은, 나혜석> <사이코패스> <두뇌수술>



전선우 Jeon Seon-woo

최지혜 Choi Ji-hye



악마선생1 Ms. Devi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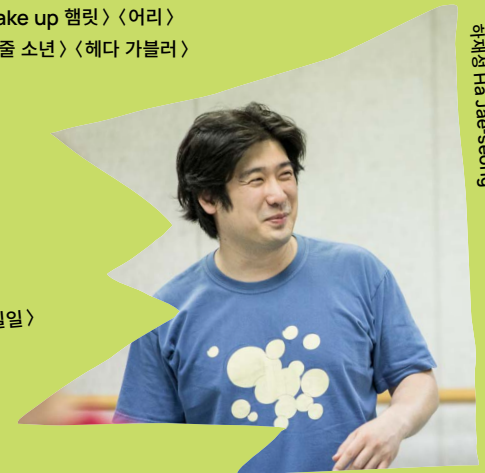
최지혜 Choi Ji-hye

- 연극 <넓은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어제의 당신이 나를 가로지를때> <메디아>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wake up 햄릿> <어리> <맨 끝줄 소년> <헤다 가블러>

악마선생2 Mr. Devil2

하재성 Ha Jae-seong

- 연극 <광인일기> <파란나라> <일일일일> <망각댄스_세월호편>



하재성 Ha Jae-seong

악마선생3 Mr. Devil3

지승태 Ji Seung-tae

- 연극 <어항> <하시마 행간의 사람들>
- 뮤지컬 <온조> <전설의 리틀 농구단> <도데의 풍차편지> <hear my song> <눈꽃의 계절> <어림없는 청춘>



지승태 Ji Seung-tae



웰컴 투 영지월드!

허선헤 Heo Seon-hye
작가

● 연극 〈헬스터 살인사건〉
〈먼지회오리〉 외

영지를 작업하면서 만난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서 받은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노냐고 물었을 때 ‘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관어로는 ‘바빠요’와 ‘쉬고 싶어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일 같은 것 그만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학원에 가고 숙제를 하는 것들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초반의 청소년들까지도 너무나 당연하게 공부노동을 하는 이 사회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기본값이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군지, 어디서 온 존재인 건지 알아내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시작된 질문입니다. 그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거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니다. 그 질문은 제 안의 깊은 동굴 속에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 터져 나와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모습을 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초4병’, ‘중2병’, ‘사춘기라는 증상’.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 시기의 고뇌를 납작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벌이는 사투가 고쳐야 하는 질병인 걸까요?

그래서 영지는 열심히 자기를 불러옵니다. 굵지 않은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신을 매일매일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영지를 이상한 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영지가 아니라 영지를 이상하게 보는 그곳일 지도 모릅니다.

영지를 그려가는 과정 중에 종종 ‘작가님이 영지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손사래 치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동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모티브가 된 아이도 제가 아닌 동네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실에서 살아나는 영지를 보며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배바지를 입고 콧수염을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던 나, 화장실에서 십 원 하나 주운 이야기를 대서사시로 반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나를 갑자기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은 참 묘했습니다. 마냥 어렵고 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하는 고민과 그때의 제가 했던 고민들이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영지와 함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영지에게 폭 빠져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웰컴 투 영지월드!

영지: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김미란 Kim Mi Ran
연출가

● 연극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 극단 창업교육 훈련 참여자 입장을 중심으로〉〈박스 안에서〉〈좋아하고있어〉〈어항〉〈갈매기B〉〈구직〉〈사랑과 교육〉〈간이연극:그레고르 잠파〉
● 뮤지컬 〈미스터코트〉 작 외

공연 준비를 하던 중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인형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계속 비닐봉지를 던지고 받고를 반복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몇 번인가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힘듦도 느껴졌지만, 그 친구의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이 공연은 어쩌면 그 친구를 위한 공연일지도 모릅니다.

영지를 보러 많은 초등학교생들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아직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영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영지는 병에 갇힌 나비이야기를 씁니다.

다리가 자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씁니다.

어른말을 태우고 달리는 어린이말 이야기를 씁니다.

어딘가 잘려나간 네모가, 시체가 되는 이야기를 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직 번데기나 올챙이 일수도 있고

이미 나비이거나 개구리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지의 기발함, 독특함, 상상력에 주목하는 것 보다 영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들어주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영지의 상상력을 무대에 구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지의 이야기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영지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잘 들어주자’

공연 2주전이 되어서야 어렵게 찾아낸 저의 목표입니다. 많이 해매고 돌아간 것 같아 함께 준비하는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미안함이 매우 큰 공연입니다. 영지가 가장 많이 떠드는 공연, 영지의 수다가 끊이지 않는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영지야.

새의 머리에 인간의 몸통에 개구리의 다리를 가졌어.

날개도 있고 꼬리도 있지. 내일은 또 다르고 모레는 또 달라!”

불러오자 불러오자 영지를 불러오자

.....

김옥란 Kim Ock-ran
드라마트루그

연극평론가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교수

● 연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레슬링 시즌〉〈바나야저씨〉
〈채권자들〉〈봄날〉〈미친국〉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아메의사〉〈오장군의 발들〉
● 저서 〈한국 연극론. 분열과
생성의 목소리〉〈한국연극과
드라마트루기〉
● 평론집 〈행복한 관객. 불행한
비평가〉〈레드와블랙〉 외

첫 시도이다. 이 작품은 청소년극 작가 발굴과 창작극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립극단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를
통해 발굴되고 개발된 작품이다. 지난해 11월
〈병목안〉이라는 제목으로 낭독쇼케이스를 거친
작품이다.

영지는 누구인가?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극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 공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동극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극으로 이 시기를 다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논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자기 목소리’와
표현방법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ASMR, 슬라임이나 미니어저 만들기 동영상
유튜브처럼 초등학생들이 만든 세계는 낯설었다. 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일까. 초등학생들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 속에는,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와
같은 서사나 판타지는 없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극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청소년극은 모두 성장을 다루는
정체성의 드라마여야 하는가? 성인 창작자들이 청소년
이야기에 접근하는 맥점, 이것은 성인 창작자들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뼈아픈 질문들이었다. 이전에는 묻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영지〉의 원래 제목은 〈병목안〉이었다. ‘병목안’은
작가가 실제로 살았던 곳의 지명이라고 한다. 병 속에
들어선 것처럼 생긴 동네의 지형에서 따온 명칭이다.
작가의 초고에서는 병목안이라는 공간의 상징성이
컸다. 영지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유리병 속에 담긴
동네, 영지는 유리병처럼 맑고 깨끗한 동네 병목안을
돌아다니며 기이한 풍경들을 본다. 영지에게 보이는
병목안의 모습은 결코 맑고 깨끗하지 않다. ‘병목안
아이 같지 않은’ 영지는 병목안 사람들에 의해 마녀로
몰리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영지는 유리병을 깨고 새로운 통로를 찾아 밖으로
나간다. 영지는 ‘가장 깨끗한 동네 1위’라는 허상을
깨부수는 전사(warrior)였다.

그런데 낭독쇼케이스를 거치면서 새로운 대사가
추가되었다. “나는 새의 머리에 인간의 몸통에
개구리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내일은 또 다르고
모레는 또 달라.” 마녀로 몰린 영지의 대사였다. 왜
어른들은 아이들을 천사 아니면 악마로 바라보는가,
아이들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항변의 메시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 모두가 이 대사에
꽃혔다. 여기에는 무언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 대사는 공연의 첫 대사이자 마지막 대사가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하면서 장면들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이 대사만큼은 바뀌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공연팀 모두 이 대사 하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온 셈이다.

그리하여 공연의 제목은 ‘병목안’이 아니라 ‘영지’가
되었다. 더 이상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시기,
아이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서 자신을 열심히 찾는다. 자기 안에서 자신을
불러오는 시간, 낯선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시간은
어떤 판타지보다도 강력하다.

마녀 화형식, 병목안 환생식, 영지의 이별식

‘병목안’이 아닌 ‘영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초기
청소년의 시기를 탐구한다—공연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러나 그 길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린이 전사, 어린이 주술사, 괴물, 초등학생 유튜브
등 연습은 끊임없이 영지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어른들의 세계를 폭로하고 뒤집는 어린이
전사의 이미지는 작품의 제목이 ‘영지’로 바뀌면서
버리게 되었다. 영지는 어른들의 세계를 폭로하는
인물이기보다 자기 세계에 좀더 집중하는 인물이길
원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주술사 설정은 맨 처음엔
로알드 달과 팀 버튼 영화와 같은 판타지를 구현하는
장치로 생각하였다. 영지의 상상력 속에는 닥스훈트
기차, 날개달린 스탠드, 코끼리 킨더조이가 출몰한다.
그런데 영지를 특이한 상상력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자, 영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영지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시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보편적인 존재, ‘대문자
영지’이길 원했다.

지금 현재 대중문화 콘텐츠 속 십대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다. 인터넷 세대에
의한 인터넷 세대를 위한 음악으로 2018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런던의 인디 팝 밴드
슈퍼오가니즘(Superorganism)의 노래, 호주
가수 시아(Sia)의 뮤직비디오 〈상들리에〉에 나오는
십대 퍼포머 매디 지글러(Maddie Ziegler)의 춤도
새롭게 접했다. 김미란 연출가는 이 세대의 이미지들에
감각적으로 빨랐다. 김미란 연출가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좋아하고 있어〉의 연출가로, 인물에 대한
섬세한 해석과 감각적인 무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녀 화형식과 환생식—작가의 초고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도 많았다. 허선헌 작가에 의하면,
어린 주술사와 마녀 화형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전이
일상화되고 에이즈가 만연한 공공의 어느 부족에서
전쟁고아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어린 마녀’나
‘어린 주술사’로 지목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헤더 몽고메리의 『유년기
인류학』(연암서가, 2015)에 소개된 일화이다. 이
책은 각 사회마다 유년기를 구분하는 기준도 다르고,
어린이들을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로 볼 것인지
불완전한 존재로 볼 것인지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고
말한다. 작가가 애초에 영감을 받았던 ‘버려진 아이’
모티브는 신화적인 상상력을 작동시킨다. 모든
이야기의 근원은 살아남고자 하는 투쟁의 이야기,
생존에 대한 사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소희와 효정이는 영지의 친구다. 소희는 영지가
눈을 맞추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는 첫 번째
독자이기도 하다.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는 비로소 완성된다. 효정이는 병목안
홍보모델로 항상 바쁘다. 효정이는 바빠서 학교에도
잘 다니지 못하고, 가끔 가는 학교가 낯설고 또 외롭다.
영지 엄마아빠도 항상 바쁘다.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쁜 세상이다. 영지는 항상 혼자였다.
그런데 이제 영지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영지는 소희와
효정이가 좋다. 그런데 영지가 마을사람들에게 마녀로
몰리면서 소희와 효정이는 영지에게 갈 수 없다.
악마선생들은 영지에게 “불러오자, 불러오자, 설사를
불러오자, 불러오자, 불러오자, 두드러기를 불러오자”
주문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잡아먹자고 말한다.
그러나 영지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를 혼자 계속 만들어간다.

영지가 만드는 이야기는 네 가지이다. 소희 통나무
이야기, 효정이 말 이야기, 영지 물고기 이야기, 병목안
반상회 이야기.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영지는
강해진다. 소희 통나무를 네모네모 깎아버리는 사람은

아빠 통나무와 도끼 선생이다. 효정이 말이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어른말을 태운 마차를 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지 물고기는 다리가 자라나서 바다를 걸어 나가 우주 한가운데까지 걸어가서 둥둥 떠 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영지의 질문은 우주만큼 큰 것이다. 영지의 마지막 이야기인 병목안 반상회 이야기는 영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과 대면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어른들은 영지를 추방하고자 한다. 영지는 병목안 반상회 장면을 두 번 고쳐 쓴다. 주술사가 되어 병목안을 그린 그림을 접고 자르고 구기고 찢어버린다. 어른들의 마녀 화형식을 병목안 환생식으로 바꿔버린다.

병목안 환생식은 영지의 이별식이기도 하다. 영지는 자기 이야기 속의 주술사가 되어 소희의 네모의 꿈, 효정의 뼈에 춤을 모두 함께 추게 한다. “내일은 또 다르고 모레는 또 달라.” 이 말은 곧 영지의 주문이었고, 영지의 주술은 곧 이야기였다. 영지는 마녀가 아니라 어린 작가였고, 밤마다 영지를 찾아왔던

악마선생들은 먼 고대의 디오니소스신의 무리들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와 노래와 춤과 광기는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

노래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다. 친구는 내가 맨 처음 사회로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이다. 거기에서 모든 문이 열린다.



영지는 누구일까? 내 옆의 ‘영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손서희 Sohn Seo-hee
예술교육리서치

● 연극 〈소년이그랬다〉
〈겨울 이야기〉
〈좋아하고있어〉

영지는 새의 머리에,
개구리의 몸통을 한
11살 여자아이이다.
예술교육팀은 〈영지〉
작업에 참여하면서 영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 사실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실에 존재할 법한, 그저 소통 방식이 특이한 아이인지, 아니면 마치 하늘에서 우산이나 돌풍 같은 것을 타고 다른 세계에 떨어진 상징적인 존재인지. 그래서 여기 병목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병목안에서 배제되는 약한 사람인 것인지. 예술교육팀에게 영지는 발을 땅에 붙였다가 떼었다가, 상처입은 어린이였다가, 수퍼 파워를 지닌 히어로였다가, 또 몽상가였다가, 마치 영지 자신의 대사처럼 창작 과정 속에서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달랐으며, 내일은 또 다를 것 같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처음부터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는, 영지가 자신을 새의 머리에, 개구리의 몸통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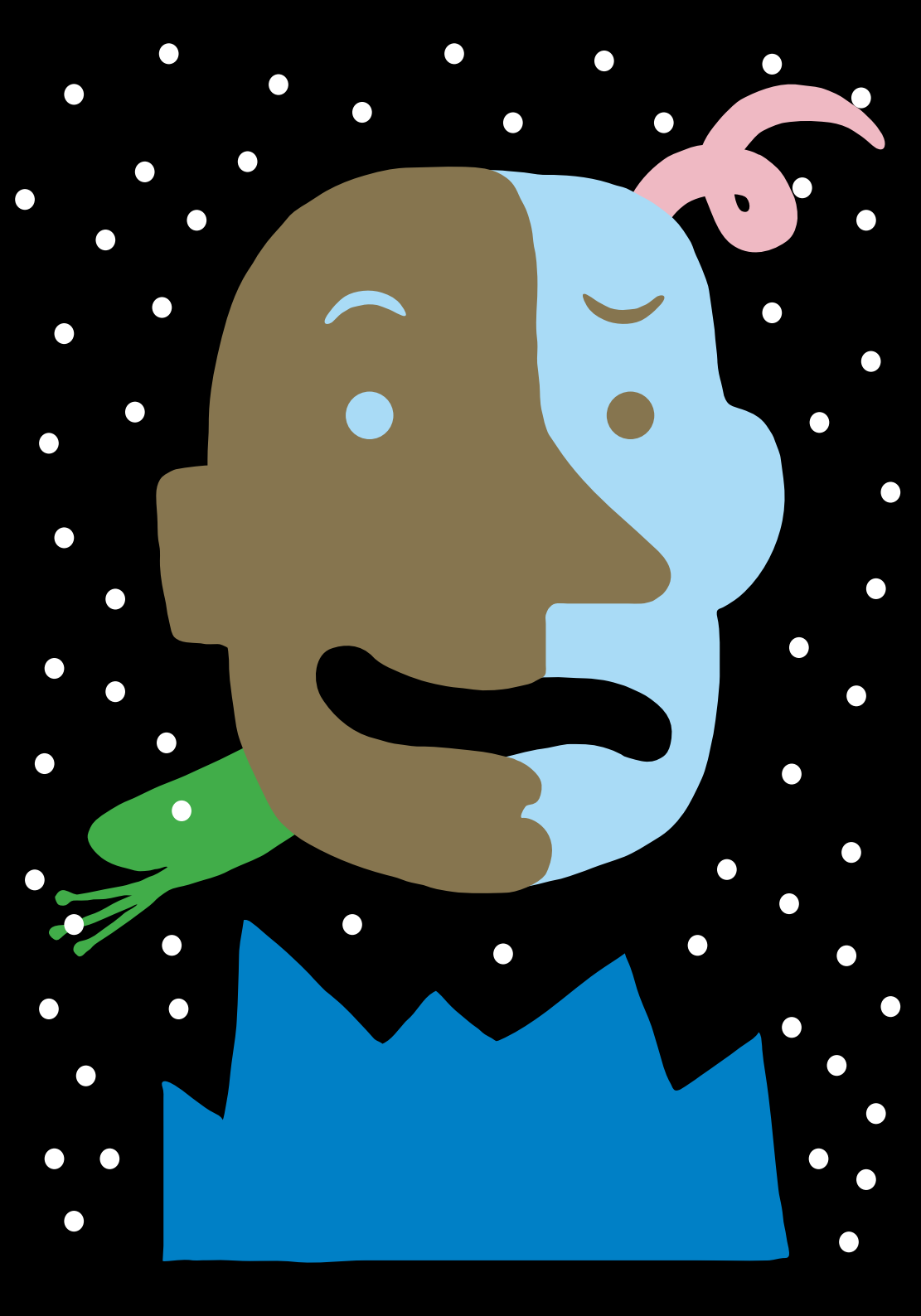
예술교육팀은 〈영지〉 속의 영지를 이해하면서 현실의 십대 초반 청소년 속 ‘영지’를 찾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영지가 자신을 지칭하는 그 대사를 부여잡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십대 초반 청소년 230명에게 공간에 대한 상상과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로써 설문을 구성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들이 자기에 대한 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 중 ‘나에 대한 나의 생각’ 항목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한 명은 이런 답을 내 놓았다.

“나는 두 개의 얼굴이다. 나는 내가 두 가지 얼굴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다른 것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때때로 난 내가 나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상상하곤 한다. 그 상상은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

빈 칸이 있는 문장으로 제시한 질문에 답변자는 굵은 글씨의 답을 채워 넣었다. 어쩌서 이 학생은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개의 얼굴’, ‘다른 사람’ 같은 것들을 떠올렸을까, 자기에 대한 설명에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변모하는 상상을 하면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긍정이나 혹은 슬픔 따위의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생각하게’ 한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 놓았을까 하는 점을 예술교육팀에서는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답변자들에게 심리 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 각각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으므로 왜 이런 답이 나왔는가를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영지〉로부터 시작된 예술교육팀의 질문이, 이 도래 청소년들의 자기에 대한 상은 결코 일관되지 않을 것이며 변화와 불일치를 내포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십대 초반 청소년들이 어떤 유형의 답변을 했는가를 살펴볼 따름이다.

영지가 개구리, 펠리컨, 도마뱀, 사자, 인간, 개미의 머리, 다리, 몸통, 아가미, 날개 등을 자신의 모습에 골라주하기까지의 과정은 무엇이었을까? 몸을 뒤집어 놀이터 바닥을 훑는 일, 새벽에 동네를 돌아다니는 일이 그 과정이었으려나. 〈영지〉 속 영지에게는 성장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편이지만, 우리는 현실 속 십대 초반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과 사회 속에서 맺는 관계망, 그것의 시시각각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변화와



소용돌이 안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상이 형성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던진 질문의 가설을 이루는 ‘불일치 감각’이라는 키워드는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self-discrepancy)’를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회·윤리적 자아 사이의 불균형으로 보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불일치가 공격성, 우울감, 좌절 등의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교육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청소년, 특히 십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구성하는 신체, 사고, 언어, 소비의 욕구 및 능력과 제도적·공간적 활동 범위 등이 제각각이어서 생겨나는 충돌과 모순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여기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불일치의 감각이 십대 초반 청소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감각, 상상력과 소통 방식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영지가 설명하는 자기 모습과 병목안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그러한 표현의 하나로 보았다.

그럼으로써, 영지로 표상되는 십대 초반 청소년들을 ‘낯 세대’, ‘어린이도, 청소년도 아닌 어중간한 연령’, ‘아직 애들일 뿐인데 머리만 굽어져서 피곤한 시기’ 등으로 회피하지 않고, 그렇다고 ‘2차 성정의 시작’, ‘발달심리학적으로 형식적 조작기’ 등 인간의 시간의 흐름을 미분한 단면의 집합으로 규정하는 데서도 벗어나 보려 했다. 이들, 초기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불확실하고, 이들에 대한 전형이란 찾기 어려우며, 이 시기를 개인, 사회, 환경의 차이 속에서 그저 서로 다른 속도로 헤엄치는 모습으로서 바라보고자 했다. 영지는 누구일까.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는 관점이었다.

작품 속 영지는 굴치아픈 초딩으로 취급되던 이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극 〈영지〉가 드러낸 빈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빈틈은 다시 우리 주변의 ‘영지’를 관찰해야 상상이 가능하다. 영지를 이해하기 위해 영지를 살펴보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져 버린다. 초기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에 이 고리가 계속 헛돌기만

할지, 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지는, 이제 십대 초반 청소년을 처음 고민하여 작품을 내 놓은 입장에서는 쉽사리 알 수 없다. 다만, 어제 달랐고 오늘 다르며 내일은 또 다를 영지의 머리, 몸통, 다리, 아가미, 꼬리, 날개를 상상하는 것이 그 고리의 이음매, 입구와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다시금 주목할 뿐이다.

‘영지’들과의 만남

예술교육
리서치 이수연, 박주아, 최은정
손서희

예술교육파트에서는 10대 초반의 청소년들과 만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극 속에만 있는 영지가 아닌, 지금 우리 주변에 현존하는 많은 영지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실과 복도에서, 공연 연습실에서, 때로는 버스 뒷좌석에서 마주했던 영지가 이렇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르고, 모레는 또 달라”

2018		
시작	9.29 - 11. 18	2018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병목안> 워크숍 4회 / 부천양지초등학교
2019		
		<공연연계 예술교육> 활동 개요
●	2. 01	청소년의 목소리로 희곡 읽기
●	2.26 - 2. 28	작품 창작 워크숍 / 산어린이학교
●	4. 12	배우 - 청소년 리서치 워크숍(1) / 북서울중학교
●	4. 19	배우 워크숍 : 청소년기와 청소년극에 대한 탐색
●	4. 26	배우 - 청소년 리서치 워크숍(2) / 서울우면초등학교
●	5. 04	오픈 리허설
●	5. 11	청소년 피드백 / 부천양지초등학교

● 초기 청소년들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

- 1) 자기인식 - 나에 대한 나의 생각
- 2) 나의 공간 - 나만의 아지트
- 3) 나의 이야기 - 나에 대한 빈칸들

설문기간 : 3.20 - 3.29

사전 설문 : 산어린이학교 4,5,6학년/중등 7,8학년 38명

본 설문 : 북서울중학교 1,2학년/중앙중학교 2학년/관문초등학교 5학년/

우면초등학교 5,6학년/태강삼육초 6학년/경복초 6학년/

양산 중앙중 1,2학년 총 2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국립극단 청소년극 <영지> 관객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국립극단 <영지>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를 작성해주신다면, 이 설문지는 청소년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작성되며,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
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관객용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 작품 창작 워크숍 / 산어린이학교

▼ 영지의 대사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해보기



▼ 공간에 대한 탐색 : 아지트 만들기

이곳은 어디인가요?

- 마법의 세계요. 엄마 없는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엄마는 잔소리 대마왕. 이걸 작은 레고 같은건데, 문을 열면 몸이 작아져서 들어갈 수 있어요. 방 서랍에 자물쇠로 잠궜서 숨겨놓았어요.
- 블랙루! 블랙이라 블랙랑 합쳐진 이름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펜션인데요. 바다에 떠밀려 온 실종자들이 모여 있어요. 어른이 되면 이곳을 나갈 거예요.

아지트에서 하고 싶은 것은?

- 친구들과 과파(과자파티), 음악을 크게 틀고 그림 그리기, 생일에 친구들을 불러서 선물을 나눠주고, 맛있는거 먹기, 진실게임



● 배우 - 청소년 리서치 워크숍

▶ 배우와 청소년 몸으로 만나기(청소년의 호흡과 몸의 리듬)

▼ 오브제(인형)를 만들고, 상상력을 동원해 이야기 구성하기



● 배우 워크숍

- ▶ 배우의 어린 시절에 대한 탐색
- ▶ 청소년극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들
- 청소년극은 어떠한가 하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극에 참여하는 배우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 나는 청소년 관객과 무엇을 나누고 싶은가.

● 오픈 리허설

진행 순서

1. 핫시팅(Hot seating) : 영지, 소희, 효정 / 영지, 악마선생
2. 공연팀 장면 시연 : 1막
3. 장면에 대한 피드백 나누기

▶ 1막 장면 시연 후 청소년과 협력학교 교사들의 피드백



청소년들의 이야기

-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영지한테도 담겨있는 것 같은데, 영지의 행동이나 말이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계속해서 궁금해졌어요.
- 처음에는 관객의 입장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은 영지의 입장으로 보고 있었는데 소희에게 학원 알람이 울리는 순간, 소희의 입장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점에 딱 그랬거든요.
- 영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이상한 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른들처럼 영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지를 이해할 만한 뭔가가 있을거다 라는 약간의 기대도 하면서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교사들의 이야기

- 작년 <병목안> 쇼케이스를 봤을 때에는 ‘영지가 진짜 아이가 아닌가? 상상의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는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극 자체는 이질적이고, 독특한 느낌이 들어서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밌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 아이들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효정한테 또 누구는 영지한테 감정을 이입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소희 같은 앤데, 어? 영지 같은 아이가 있네? 너무 재밌다.’ 그런 식으로도 교차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부천양지초등학교 청소년들과의 만남

▶ 청소년 대본 리딩 및 공연팀의 1, 2막 장면 시연 후 나누는 질문과 이야기들

악마선생들이 어떻게 느껴졌나요?

정신 사나웠어요.(웃음) 일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악마들이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유독 재미있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영지가 선생님한테 대들지 않으면서도, 장난치는 느낌이 현실적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영지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졌나요?

기묘해요. 사고부터 달라요. 저희같은 아이들은 범접도 못할 거예요.

공연 <영지>는 어떤 이야기 같나요?

스토리가 영지 기준으로 돌아가고, 영지가 짠 이야기들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 아이의 일기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 영지들 ’

고미주 김비야 김지음
박소연 김가연 엄이주 원가연
신지인 정서연 유서진
장채원 정동윤 한주희
이예령 김태연
곽혜주

산어린이학교 4,5,6학년 / 16명

고찬우 정운재 김주담 정수현
오서진 조도겸 김지유 김아현
권민재 윤호진 허지혁 정현서
박건희 이우성 김선혜 박수민 양수지
배주원 이훈석 신서현 최서영
송드림 이권담 백정환 최세린

우면초등학교 6학년 달반 / 25명

윤소명 노승환
오테경 김예건 김정빈
고은별 김지민
강조규 백한별 선정우
이상협 이재현 안효빈
최민성 이희수
조현욱 황규찬
전채연 황주원

북서울중학교 1학년 8반 / 19명

김지원
김극렬 이지우
유수현 윤광석

청소년 자문단

박가인 김새솔
김민정 박연주

양지초등학교 6학년

‘ 선생님들 ’

김동일 김은빈
(북서울중학교) (양지초등학교)

박시현 이병직
(우면초등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오수민 민혜현
(우면초등학교) (우면초등학교)

손예은 양혜원
박세은 전예린 김지원
육선민 윤재희 최지원
주찬하 김극렬 유수현

<오픈 리허설>에 참석한 청소년 참여자

작

허선헤 Heo Seon-hye
프로필 8페이지

연출

김미란 Kim Mi Ran
프로필 9페이지

드라마트루그

김옥란 Kim Ok-ran
프로필 12페이지

미술감독·무대

송성원 Song Sung-won
● 연극 〈음악극 할랄라쇼〉
〈그레고르잠자〉〈템페스트2013-들.고있니?〉
〈사랑과 교육〉〈음악당 달다-여기서 자자〉
〈제비물러나간다〉〈구직〉〈갈매기B〉
〈좋아하고 있어〉〈이야기셋〉외
● 뮤지컬 〈지하철1호선〉
● 오페라 〈썬타는박사장길들이기〉
공간디자인 〈안산거리극축제〉〈선유도
거리예술장터〉외

조명

박유진 Park Yu-jin
● 연극 〈넓은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조앤스칼렛〉〈분장실〉
〈오텐라〉〈카논-안티고네〉
● 국악극 〈꼬꼬만냥〉
● 판소리극 〈환상노정기〉
● 뮤지컬 〈얼췌〉외

오브제

이지형 Lee Ji-hyung
● 기획 및 제작 〈감탄사, 언어의 관절〉
〈기존의 인형들〉〈인간장수〉
● 무대미술 및 인형 〈아방가르드 신평극〉
〈공상물리적 춤〉〈다페르튜토스튜디오〉
〈마타리키〉〈엄마이야기〉〈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알사탕〉〈반고흐와 해바라기 소년〉외

의상·소품

이은경(EK) Lee Eun-Kyung
● 연극 〈위험한 실험실 B-123〉〈우산 도둑〉
〈분노의 포도〉〈데미안〉〈로드씨어터
돈키호테〉〈마르시카〉〈모던타임즈〉
〈하프선이 남작의연회장〉〈드림타임〉
〈사천의 착한 살인〉
● 뮤지컬 〈앤, ANNE〉〈야조, 왕의길〉

사운드

목소 Morceau J. Woo
● 연극 〈7번국도〉〈나의 사랑하는 너〉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9월〉〈타즈매니아 타이거〉
〈미아리고개예술극장〉〈사물함〉
〈전화벨이 울린다〉〈좋아하고있어〉
〈2017 이반검열〉〈고등어〉외
● 미술 〈궤도연구〉〈Anomalous Fantasy〉외
● 영화 〈시 읽는 시간〉〈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외

움직임

권영호 Kwon Young-ho
● 움직임 〈오렌지 북극곰〉〈타조
소년들〉〈템페스트〉〈메데아의 아이들〉
〈The Phone〉〈문(The door)〉
〈몸 탐구생활 part 1: 무개Body〉
● 배우 및 무용수 〈New monster〉
〈One day maybe〉〈60억개의 신의
이름〉〈몸, 건축을 만나다〉〈동거인들〉
〈The 7th man〉〈순례자〉외

교육감독

이수연 Lee Su-yeon
산어린이학교, 법씨학교 연극교사
● 연극 〈비행소년KW4839〉
● 저서 〈6학년〉〈바람이 불어오는 숲에서〉

예술교육 리서치

손서희 Sohn Seo-hee
프로필 15페이지

예술교육 협력 및 기록

박주아 Park Ju-ah

무대감독

민상은 Min Sang-eun
● 연극 〈고독한 목욕〉〈오슬로〉
〈나는 살인자입니다〉〈날보려와요〉
●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시라노〉
〈스위니토드〉〈젊음의행진〉
〈지킬앤하이드〉〈전국노래자랑〉
〈콘보이쇼〉〈그리스〉외

조연출

박한서 Park Han-seo
● 연극 〈동주〉외

출연

김수빈 박소연 전선우
지승태 최지혜 하재성

스태프

작 허선헤
연출 김미란
드라마트루그 김옥란

미술감독·무대 송성원
조명 박유진
오브제 이지형
의상·소품 이은경
사운드 목소
움직임 권영호
조연출 박한서
무대감독 민상은

교육감독 이수연
예술교육리서치 손서희
예술교육기획 최은정
예술교육협력 및 기록 박주아

무대기술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 김지유
음향오퍼 류혜영
무대크루 이동인
의상진행 이경민
무대팀 이동인
조명팀 김누리 이보경
고승우 이지환 김병희

무대제작 세원무대
의상·소품제작 이케이코스름
(대표 : 이은경)

메인 디자인 워크룸
응용 디자인 스튜디오 봄봄
홍보·공연·연습사진 장성용 정원균
기록영상 미니멀랩
홍보물 인쇄 인타임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최윤영 이슬기 김율
마케팅 김태은 박보영 한나래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변정원
티켓 김보전 이현아 김보배 김보연
매표 안내원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민주 이선영
하우스 매니저 김나래 조영채 김수현
안내원 김성주 권묘정 전준형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박채현
정미현 김희지 정주호 지윤아 최재훈

프로그램제작

기획·편집 김미선 권은지
디자인 워크룸
사진 장성용 정원균
인쇄 미림아트

제작총괄 김성제
프로듀서 김미선
제작진행 권은지

예술감독 이성열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안병균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심소연 박성호
정재영 프로듀서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승이 변정원 김울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 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정보화·교육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김시내 비서·윤리경영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어린이청소년국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세별 조남용
주인영 홀아론

영지 워크북

청소년극 〈영지〉 예술교육팀
이수연, 손서희, 박주아

청소년극 〈영지〉 워크북은 공연을 관람하고, 스스로 또는 공연을 같이 관람한
사람들과 함께 연극의 내용과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고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난 후, 영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나이는 11살, 병목안 마을에 사는 엉뚱하고 신기한 영지. ‘모두 환생!’을 외친 후, 벽지를 찢고 영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① 새로 만날 세상 앞에 놓인 문의 색깔은?

하얀색 문

② 그 문 바깥에 펼쳐질 세상의 모습은?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과 화려한 물건들이 가득 찬 시장

③ 그렇게 도착한 새로운 세상. 그 곳,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

괴상하게 생긴 사람들. 모두 몹시 분주하고 바쁘다.

④ 그리고 그 곳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낯선 곳에서 살아남기. 그러기 위해서 고된 일을 하며 버티기.

⑤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문을 열고 갈 때. 이 곳에서의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이상한 세상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길, 똑같은 차림새이지만 내 안의 무엇인가는 달라졌다.

⑥ 이 이야기 속의 청소년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얀색 문 밖은 부지런하고 독립적인, 그리고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10살 치히로의 세상.

초록색 문

숲이 가까운 호숫가의 시골 마을

처음 만나지만 따뜻한 사람들. 친구가 되고 싶은 누군가.

가족과 친구를 만들어 간다. 평범하지만 조그만 사건들로 가득찬 하루하루.

마을 안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초록색 문 바깥은, 마음껏 상상의 세계를 만들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12살 빨간머리 앤의 세상.

빨간색 문

기묘하게 소용돌이치는 바다 위 돛단배

과거가 화려한 뱃사람 친구들.

전설 속 영웅이 되려고 동료들과 멀고 위험한 바다로. 위험이 득시글하지만 부딪혀 해결한다.

왠지 목표가 멀지 않아 보인다. 목표가 다시 멀어진다고 해도 동료들과 함께 하는 일은 행복하다.

빨간색 문 바깥은 17살 루피의 세상.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물정을 모르지만 세상 제일 가는 유쾌함과 선의, 그리고 우정의 힘.

다시 병목안을 떠올려 볼까요? 병목안의 영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① 영지 앞에 놓인,
병목안으로 이어질 문의
색깔은?

② 문 바깥 병목안은
어떤 곳인가요?





④ 그곳에서 영지에게
어떤 일들을 생기나요?

③ 그곳 병목안, 영지의
주변에는 누가, 무엇이
있습니까?

⑤ 그리고 영지에게 벌어진
병목안에서의 일들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⑥ 그렇다면 영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새의 머리에, 인간의 몸통에, 개구리의 다리를 가진 영지. 날개도 있고, 아가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주변 사람 중에도 영지와 비슷한 사람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머리와 몸통을 지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요?

내 친구  는  의 머리에,
 의 몸통에,  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도 있고,  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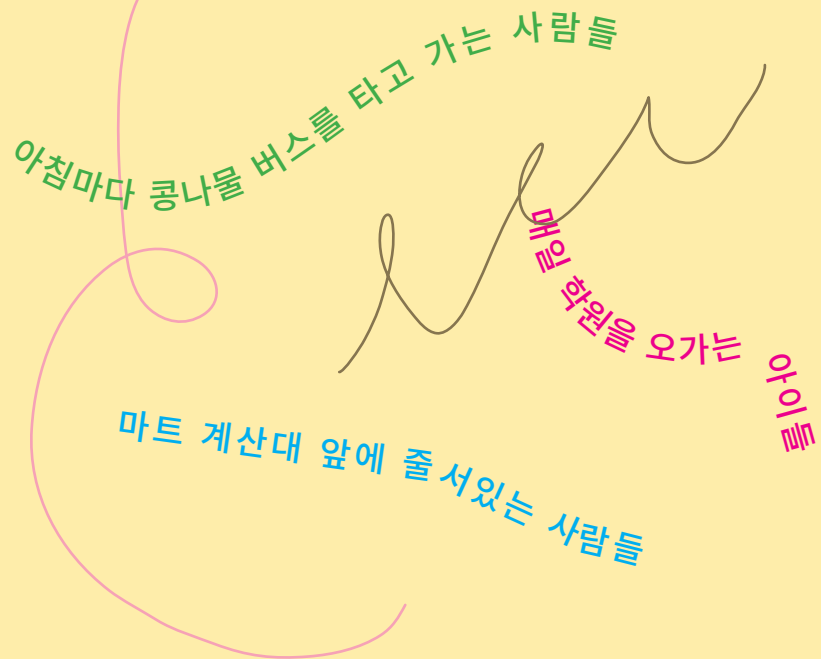
그 친구와 함께 있는 나는  의 머리에,
 의 몸통에,  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

 도 있고,  도 있어.

어제는 달랐고, 내일은 또 달라.

이런 영지는 이야기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병목안의 일상적인 일들이 영지에게는 이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떠올려보고 또 관찰해 보세요. 남들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내게는 이상하고 희한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재료들을 모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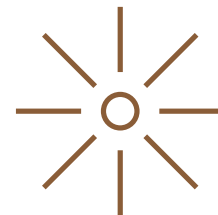


우주의 우주만큼 넓은 초원이야. 효정이 말이 마차를 끌고 있어. 효정이 말은 달리고 달리고 계속 달려. 달리지 않는 말은 쓸모없는 말일지도 몰라. 초원에는 유니콘도 있고 켄타우로스도 있지만 구경할 수가 없어. 다리가 아프지만 쉴 수 없어. 왜냐하면 어른 말들을 태우고 달려야 하기 때문이지.

영지는 수집한 이야기 재료들을 다른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서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듭니다. 세상의 일들을 다른 것에 빗대어보면 새로운 마음도 생겨나고, 엉뚱한 일들도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수집한 이야기 재료들을 다른 것들에 빗대어 상상해 보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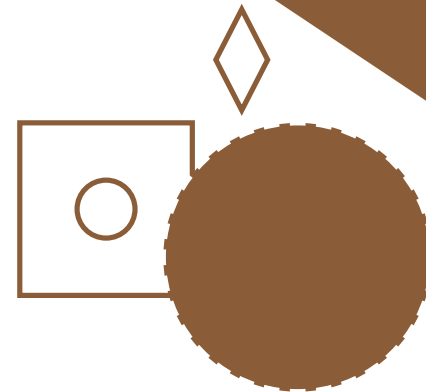


어제는 달랐고 내일은 또 다르겠지만, 지금 떠올린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으로도 그려볼까요?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문을 열었다.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극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청소년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공연, 작품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젊은 작가·연출가·배우 육성을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 작업으로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작은극장프로젝트', 예술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소년예술가탐색전> 등이 있다. 주요 청소년극 레퍼토리로는 <소년이그랬다>,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비행소년 KW4839>,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타조 소년들> 등이 있다.

“모두, 환생!”

(환생 : 다시 살아남)

국립극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